



# EMBRACE YOU

포근하고 단단하게 감싸주는 나의 작은 섬.

photographer JANG SEUNG WON  
editor YOON JEONG HOON

소파를 고를 때 가죽의 듬직함과 패브릭의 친밀함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적 있다면 '오지 암체어(Ozzy Armchair)'를 눈여겨볼 것. 올해 밀란 디자인 위크에서 첫선을 보인 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국에 상륙한 플렉스폼(Flexform)의 최신 컬렉션이다. 디자이너 패트릭 노게(Patrick Norguet)는 옷의 일부를 가구의 일부로 재해석했다. 패브릭으로 부드럽게 한 번, 가죽으로 단단하게 다시 한 번 몸을 감싼 등받이는 17세기에 처음 도입돼 귀족의 상징이 된 칼라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이다. 최고급 소가죽에 인장 제작 장인의 정교한 기술을 접목해 우아한 뒤태를 구현했고, 몸과 등받이 안쪽은 구스다운 쿠션으로 채워 탁월한 편안함까지 쟁겼다. 보이지 않는 금속판 위에 놓여 360°로 회전 가능한 스위블 체어라 손으로 살짝 밀거나 몸을 가볍게 틀면 원하는 쪽으로 쉽게 향한다. 서로 다른 소재 조합으로 방향에 따라 다른 면모를 보이니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손색 없고 이동도 편리하다. 한마디로 유목민처럼 집 안 이곳저곳 누빌 준비가 된, 한 사람을 위한 아늑하고 자유로운 보금자리. 패브릭과 가죽 컬러 변경이 가능한 플렉스폼 오지 암체어는 가격 미정. **Flexform by Infini.**